

Ⅲ. 주요 경제 현안

1. 인도네시아 사태의 영향

- (현황) 현재 국제기구의 자금지원 중단압력, 화교자본의 급속한 퇴출 등으로 인도네시아 경제는 사실상 마비상태에 이르렀음. 하비비 대통령 권력 승계 이후 어느 정도는 진정되었으나 인도네시아 정세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임
- (모라토리엄 선언 가능성) 사실상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인도네시아의 외환시장 불안, 무역결제상 애로가 장기화될 경우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對인도네시아 수출 감소뿐 아니라 원자재 수입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으며, 44억 달러에 달하는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의 채권이 부실화될 것임

□ 인도네시아 사태 현황

- (인도네시아 현상황) 5월 4일 유류가 인상 발표 이후 군중시위가 격화된 이래 정세는 극도의 혼란양상으로 치달아 결국 수하르토는 하야하였음
 - 경제성장률은 96년 8.0%에서 97년 4.6%로 하락하였으며 내수침체로 민간소비 증가율 역시 96년 15.3%에서 97년 2.2%로 급락함. 97년 7월 외환위기 이후 루피아 환율 폭락(78.9% 절하)으로 민간기업들은 사실상 채무이행을 중단한 상태임
 - 5월 18일 중앙은행이 외환결제를 포함한 모든 은행간 청산거래를 중단한다고 발표하는 등 금융시장이 마비상태에 빠졌음
 - 인도네시아 경제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화교계 기업들이 철수를 서두르고 있음. 화교자본이 대거 빠져나갈 경우 경제 성장률은 당초 예상치인 5%에서 -9~-10%선까지 떨어질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IMF등 국제기구는 하비비 등장이후 강력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도네시아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이 어렵다고 밝혀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음
- (향후 정국변화) 하비비 승계이후 예상되는 인도네시아의 정국변화는 크게 네 가지로 대별할 수 있음
 - 첫째, 하비비 대통령이 정치 및 경제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경우, 둘째,

현재의 구조가 온존된 채 반정부세력의 시위가 계속 이어지는 불안정국면이 이어지는 경우, 셋째, 위란토 장군이 이끄는 군부가 전면에 나서는 경우, 넷째, 민중혁명에 의해 각계를 망라한 연립정부가 구성되는 경우 등임

- 이중 가장 발생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현재의 구조속에서 사태가 장기화되는 경우임. 하비비가 전형적인 기술관료 출신으로서 수하르토의 직계임을 감안할 때, 그가 전면적인 개혁작업을 수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가 의문이고 야당과 학생세력 역시 그를 수하르토의 대변자로 치부하고 있어 향후에도 정국불안정은 이어질 전망이다

- (전망) 인도네시아 경제의 정상회복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정권 이양에도 불구하고 화교들이 장악하고 있던 물류시스템이 붕괴되어 유통질서가 마비되고 식량 부족 사태가 우려되고 있음
- 따라서 올해 인도네시아 물가 상승률은 IMF가 전망한 47%보다 훨씬 높은 10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손실을 회복하는 데만도 최소 4~5년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또한 화교자본들은 하비비 승계 이후 정국이 안정되지 않는 한, 이미 퇴출한 자본을 들여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인도네시아 사태의 파급효과

- (모라토리엄 선언 가능성) 인도네시아의 총외채는 지난 2월말 현재 1,316억 달러에 달했음

- 공공부문 외채는 653.9억 달러로 이 가운데 534.6억 달러가 정부외채이고 국영기업들의 외채는 119.3억 달러로 집계되고 있음. 민간부문 외채는 662억 달러로 이 가운데 577.2억 달러가 일반기업들의 외채임
- 한때 모든 은행간 외환결제가 중단되고 외환시장도 폐쇄되었음. 싱가포르 등 역외 외환시장에서도 인도네시아 루피아화의 거래가 거의 끊겼으며 은행간 외환결제 중단으로 무역대금 결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12개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투자 의사를 보이던 8개 외국기업들도 폭동사태로 투자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음
- 이러한 상황에서 하비비 대통령이 정국을 장악하지 못하고 루피아화 불안과 무

- 역결제 애로 상황이 오래가게 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대외채무상환 불능을 선언할 수밖에 없을 것임
- 인도네시아 경제가 이처럼 사실상 마비되자 미국 신용평가기관인 S&P社는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을 'B-'에서 'CCC+'로 하향 조정했음
- (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간 안정 기미를 보였던 아시아 외환·금융시장이 인도네시아 사태로 동요하고 있음
- (엔화 하락 유발) 엔화는 5월 19일, 달러당 1백36.27엔까지 하락했는데,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채권을 갖고 있는 일본금융기관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된 것이 엔화하락의 요인이었음. 4월중 전년동기대비 사상 최악의 여신감소율을 보인 일본 금융계가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역내 채권 조기 회수에 나설 가능성이 우려됨
 - (일본은행 부실화 가속) 일본은행들은 98년 3월 결산때 인도네시아 등의 채권상환불능에 대비하여 은행별로 2백~6백억엔씩을 적립해왔으나 이것으로도 부족한 형편임. 외채협상도 5월말에서 6월초로 연기된 실정이고 그나마 전망도 불투명해서 일본측은 부실채권을 증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외국자본 이탈) 아시아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투자이사결정을 하는 외국 투자자들은 신속하게 동아시아내 투자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음. 만약 이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이 심각한 금융위기에 빠지게 될 것임.
 - (중국의 위안화 절하압력 가중) 하반기에나 절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던 위안화의 평가절하 압력이 다시금 가중되고 있음
-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출입은 물론 직접투자와 채권 회수 등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타격이 우려됨
- (수입) 97년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수입은 41억 달러였음. 인도네시아는 원유, 천연가스, 목재 등 주요 원자재 수입대상국이어서(가스 수입은 전체 수입액의 52%), 수입원자재의 수급이 원활해지지 못할 경우 우리 수출업체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기초원자재 수출 비중이 지대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질서가 확보되면 원자재 수입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 (수출) 97년 35.4억 달러였던 對 인도네시아 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국불안이 가중되기 전인 올해 1~3월에도 對 인도네시아 수출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화학 제품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56.8%나 급감하였음
- (직접투자) 전자, 자동차, 건설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한 투자규모도 지난 3월말 현재 12.3억 달러에 달하고 있어 이번 사태로 인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됨. 수출대금 및 공사미수금 등을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한 원자재 수입대금, 회수불능채권, 국내에 투자된 인도네시아 자산 등으로 상계 처리하는 방안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 對 인도네시아 수출입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1~3
수출	2,094.8	2,539.7	2,957.9	3,198.1	3,540.9	424.3
수입	2,588.4	2,842.9	3,325.2	4,013.0	4,098.8	896.4

- (채권회수) 올해 2월말 기준으로 국내 금융기관들의 채권총액은 44억 달러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특히 10억 달러에 달하는 신용대출의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일 등 주요 채권국들과의 협조체제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임
 - (국제금융시장의 평가) 사태가 악화되면서 월가의 펀드매니저들은 98년 여름까지 對 아시아 투자를 피하라고 권고하였으며, 동아시아 전역의 주가 및 역내통화 가치 하락을 예상하고 있음. 아시아 채권가격은 5월 중순에 일제히 하락했고, 한국 외평채와 산업은행 채권의 가산금리는 4.20%에 이르렀음
 - (14개 폐쇄종금사 인도네시아 투자손실) 한이름종금이 신한·삼삼·한솔종금 등 14개 폐쇄종금사의 외화자산을 이전한 결과, 이들 종금사의 외화자산은 장부가액 기준으로 모두 34억 2,400만 달러인 것으로 집계되었고 이중 인도네시아에 투자된 외화자산은 13%인 4억 5,000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음
- (외환위기에 대비) 사태 장기화시 발생할 수 있는 외환위기에 대비해야 함
- (안정적인 외환 보유고 확보) 315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는 안정적인 수준이 아니며 3개월 수입 분량을 초과하는 400억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가 필요함. 정부 일각에서는 새로운 외평채 발행의 금리 수준을 놓고 논의를 벌이고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환보유고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약간의 금리 부담은 감

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채권 확보 시급) 인도네시아와의 제 3차 외채 협상이 6월초로 연기되었는데, 여기서 우리의 채권확보 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어야 할 것임. 만약 전체 채권 44억 달러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국내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임
- (한국의 이미지 제고) 인도네시아 사태로 인해 아시아에 대한 외국인 직간접 투자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한국은 어느 국가보다도 위기 탈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이미지 제고에 힘써야 할 것임
- (신속한 경제 구조조정)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임. 이는 결국 국내 금융 시장의 안정을 조기에 회복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주는 방법일 것임

(양 두 용 yangdy@hri.co.kr ☎724-4057, 양 성 수 yangsu@hri.co.kr ☎724-4017)

<향후 인도네시아 사태 전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